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가히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해마다 듣는 입시지옥이니 입시전쟁이니 하는 말 뿐 아니라 요즘에서 점차 부각되는 조기교육이니 영재교육이니 하는 말들이 이를 실감케 한다. 이런 교육열 때문에 아동도서나 학습참고서는 잘 팔리고, 또 그만큼 많이 만들어진 다. 그러나 이런 책의 홍수 속에서 학습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좋은 책을 선택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과외금지조치로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진 학생들에게, 교과별 입체편집으로 찾아보기 쉽게 만들어진 백과사전이 새로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민서관에서 나온 「원색 과목별 학생대백과」가 그것.

“국민학교·중학교 교육은 상급학교에서의 수준 높고 전문적인 학문에 착수할 기초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직접 사전을 찾고 분석·종합하여, 착실히 기초를 다져가는 학습태도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학사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너무 전문적인 사전 역시 적합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학문의 기초를 배우는 학생이므로 학교교육과 병행하여 참고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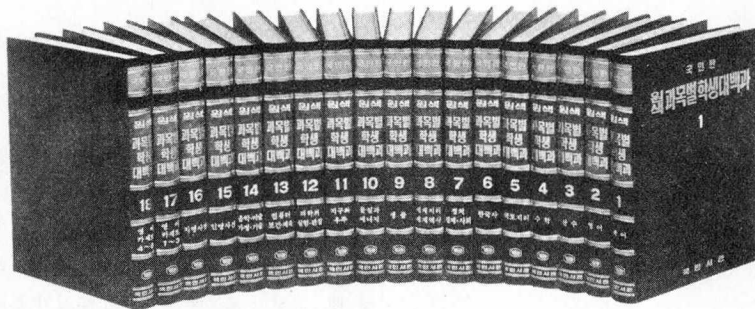
지난 30년 가까이 아동도서를 주로 출판해 온 文鍾誠사장은, 특히 ‘내용의 충실성’, ‘자료의 풍부성’, ‘제작의 완전성’에 완벽을 기했다고 말한다.

3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최근에 발간된 이 학생백과는 벌써부터 학생이나 학부모들 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잘 만들어 놓으면 잘 팔린다’는 출판시장의 원리를 입증해 준다

가정학습의 종합적 지침서

교과별 입체편집... 찾아보기 쉬운 백과사전

「원색 과목별 학생대백과」 전18권
국민서관 펴냄



는 것이 국민서관측의 장담이다.

이 학생백과의 특징으로는 우선 교과목별 편집을 들 수 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 전학년 을 대상으로 총 20개 과목을 권별로 나누고 「인명사전」 「지명사전」을 각기 별권으로 하여 구성하고 있다. 각권의 내용은 교과과정을 기초로 하여 학교공부와 병행해서 수시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백과사전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봐야 하는 책.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 도중 궁금한 것은 그때그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매권마다 앞머리의 ‘차례’와 끝머리의 ‘찾아보기’를 둔 것 외에도 ‘교과서 대조표’와 ‘전과목 찾아보기’를 별책 부록으로 따로 만들었다. 교과서대조표는 지금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주요

교과서의 차례 항목과 학습내용이 이 백과의 어느 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첨단과학시대에 발맞추어 필수 과목이 되리라 예상되는 컴퓨터 과목을 넣어, 초보적인 것에서부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또 ‘과학의 실험·관찰’을 한권으로 독립시켜 이론중심에서 벗어나 실험과 관찰을 통해 과학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특히 마지막 2권은 올바른 영어학습을 위해 카세트테이프를 수록하고 있다. 표준말을 사용하는 외국인의 음성으로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필수단어와 생활영어·영어이야기·시·노래 등을 담아 듣기·말하기 공부를 함

게 할 수 있도록 꾸몄다.

“한 과목의 체계적인 학습도 중요하지만, 모든 과목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령, 의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법의학 분야에선 법을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문학·예술의 세계를 두루 익히고 탐구하는 길입니다. 장차 분야별로 전문성을 띠게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연관학습을 위해 전 교과과정을 망라, 입체구성을 시도했다고 權榮植부장은 말한다.

한편 이 백과의 또다른 특징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제작비 투여. 전18권 총 6천7백여면의 방대한 사전으로 고급 스노화이트지를 사용, 2만여점의 사진·도판을 전면 원색으로 싣고 있다. 이 자료는 국내외 각 기관을 통해 수집했으며, 저명화가들이 직접 그린 것도 있다. ‘읽는 공부에서 보는 공부로’의 시각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살려 학습의 흥미를 이끌어내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자녀가 있는 각 가정마다 학습참고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선택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보고 덮어두는 것이 아닌, 가까이 두고 자주 들춰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학습효과가 상승, 공부에 대한 흥미를 불러넣어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원색 과목별 학생대백과」는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국민서관/B5/각권 400면 내외/전질 290,000원

— 최윤희 기자

통상적인 의미의 ‘위인전’과는 구별되는 색다른 傳記物이 외국출판사와의 정식 판권계약 아래 번역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현출판사에서 15권이 동시에 나온 「세계지도자열전」이 그것으로, 86년 10월 서독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을 참관했던 金宗坤사장이 당시 미국의 Chelsea House Publisher社와 계약을 맺고 1년여의 준비 작업 끝에 펴낸 것이다.

이 「세계지도자열전」은 위인으로 평가받는 정치지도자뿐 아니라 독재자나 공산주의자, 테러리스트로 매도되고 있는 인물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 이번에 함께 나온 15권 가운데는 히틀러, 스탈린, 카다피 등을 비롯, 그동안 소홀히 취급돼왔던 제3세계의 지도자로 사다트, 후세인 등까지 망라됐다. 심지어는 안토니우스와의 사랑으로 더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18세기 말 러시아의 전제군주였던 예카테리나女帝도 등장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은 위인전이라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이며, 허구적인 독서의 감방에서 석방되어야 한다”는 「세계지도자열전」

히틀러에서 카다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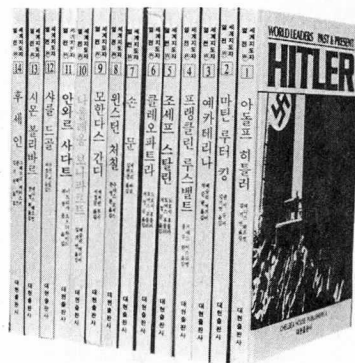
指導者像 새롭게 조명한 傳記物

「세계지도자열전」(15권)
대현출판사 간

의 발간취지는 일단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지도자열전」은 거기 실려 있는 주인공들의 생애를 조명해봄으로써 선악의 가치판단이나 好不好의 취향에 구애받지 않는 지도자 평가의 시금석을 발견하게끔 해준다.

예컨대, 위인으로 추앙받던 인물들은 그 ‘위대성의 신화’에 가려진 인간적인 약점들을, 악인이나 적으로 매도당하던 인물들은 그 ‘비난의 그늘’에 묻힌 역사적 공헌을 우리 눈앞에 새롭게 드러낸다는 것.

그래서, 이 책은 대개의 위인전들이 아동을 상대하고 있는 데 반해 대학생 독자를 위해 꾸며졌다는 것이 김종곤사장의 설명. 한 인물에



대한 존경이나 경멸이 아니라 ‘탐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보다 성숙한 차원의 독서를 요구한다.

미국에서 모두 101권이 간행, 이미 6~7개 국어로 번역돼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는 이 「세계지도자열전」은, 아시아권에서는 이번

의 대현출판사 번역본이 최초.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인물들만을 추려 70권 안팎으로 내년말쯤 완간한다는 것이 출판사의 계획이다. 11월중에는 프랑코, 호메이니, 티토, 胡志明, 페론의 열전 5권이 새로 나온다.

「세계지도자열전」의 앞으로의 편집방향에 대해 김종곤사장은 “위인전은커녕 어쩌면 악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그만큼 인물선정이 참신하고, 또 파격적이기까지 하리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그런 참신함과 파격성이야말로 인물평전의 새로운 시도에 걸맞는 태도일 것이다.

어쨌든 모처럼만에 보는 색다른 성인용 전기물이 외국출판사와의 멋진 계약 아래 국내 독자들에게 선보이게 된 것은 반가운 현상. 이 「세계지도자열전」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에 선명한 발자취를 남긴 세계 지도자들의 야망과 의지, 그리고 놀라운 지도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현출판사/B5변형/각권 120면 내외/각권 2500원